광주시장·전남지사·교육감 당선자

"민주·인권·평화…한국의 모델 도시로"

윤장현 광주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자는 4일 "혼자 잘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느끼는 따뜻한 공동체 광주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자는 이날 당선 확정 후 "정치인도 행정가 출신도 아닌 저에게 광주시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부여해준 시민들게 감사드린다"면서 "지지 여부를 떠나 모든 분들의 마음까지 섬기는 광주시장, 첫 시민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광주에서 시민의 시대를 열겠다고 이야기했다"면서 "그 초심 잃지 않고 시민들과 허물없이 만나고,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광주를 민주·인권·평화가 빛나는 대한민국의 모델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자는 또 "오직 새로운 광주를 만드는 일에 헌신하겠다"면서 "측근 비리 없는 청렴한 광주,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행정문화, 깨끗하고 당당한 광주를 통해 시민들의 선택이 옳았음을 입증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당선자는 새로운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투표로 보여준 시민들의 뜻 이제 참여로 승화시켜 줘야한다"고 당부한 뒤 "저와 경쟁했던 강운태 후보와 다른 후보들의 경륜과 지혜도 모을 수 있도록 앞으로 정성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약력 ▲광주 출생 ▲조선대 의대 졸업 ▲한국 YMCA 전국연맹 이사장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아름다운 가게 전국 대표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조선·화학·제철·의학 등 주력산업 육성"

이낙연 전남도지사

이낙연 전남도지사 당선자는 4일 "선거기간 내내 '행동하는 혁신 도지사'가 되겠다고 약속한 대로 변화를 갈망하는 도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해 혁신을 이뤄가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자는 이날 당선 확정 후 인터뷰에서 "민선 6기 전남도정을 저에게 맡겨 주신 도민 여러분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도민은 전남을 생명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저의 비전을 선택해 주었다"며 "도민 성원에 어긋남 없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당선자는 도정 혁신 방안에 대해 "중요정책은 도민 소통의 과정을 거치고 지사의 업무를 정기적으로 평가받을 것이다"며 "동부권에 실질적 제2도청을 두고 일주일에 하루 이상을 그곳에서 근무하는 한편 인사와 사업을 철저히 공정하게 하고 공직자들이 창의적으로 일하도록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또 "전남이 모든 분야에서 활력과 매력을 늘리고, 정치적 위상을 되찾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를 위해 여수 석유화학, 광양 제철, 목포 조선 같은 전남 주력산업이 당면한 애로를 뛰어넘고 새로운 활로를 찾도록 지원하겠다"며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본격 육성하고, 화순·장흥을 잇는 중부권에 통합 생물의약기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kpark@

약력 ▲영광 출생 ▲서울대 법대 졸업 ▲동아일보 국제부장 ▲16~19대 국회의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대변인·사무총장

"질문 있는 교실·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는 4일 "이번 승리는 참교육의 승리이자,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바라는 광주시민의 승리"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장 당선자는 선거 승리의 원동력을 묻는 질문에는 "광주교육이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아이들과 학부모, 선생님들 모두가 행복한 미래지향의 광주교육을 간절히 열망하고 응원한 결과"라면서 "특히 지난 4년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보편적 교육복지와 청렴 정책에 많은 공감을 보내주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장 당선자는 앞으로 광주교육의 방향에 대해서는 "지난 4년 동안의 교육 개혁에 대해 시민들이 지지하는 것을 느낀 만큼 민선 2기 때는 더욱 강력한 개혁정책을 펼칠 생각"이라면서 "민선 1기가 광주교육의 큰 물줄기를 바꾸는 시간이었다면, 민선 2기는 '광주교육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혁신'을 위한 도도한 물줄기가 모든 학교 현장에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전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협력수업과 토론수업 중심으로 수업 구조도 바꿔 '질문이 있는 교실'을 만들고,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도 고등학교까지 넓히겠다"고 덧붙였다. 장 당선자는 "청렴과 혁신교육, 보편적 교육복지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더욱 확대시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 4년 뒤 모두가 부러워하는 광주교육 현장을 만들어 시민 여러분의 뜻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약력 ▲충북 단양 출생▲조선대대학원 사학과▲전교조 광주지부장 ▲광주고 교사 ▲직선 초대 광주시교육감

"아이들이 당당한 교육공동체 만들 것"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당선자는 4일 "지난 4년 전남교육의 희망을 만들어온 성과는 이어가고, 도민들의 기대와 마음에는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승리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무상급식 비율 전국 1위, 특성화고 취업률 전국 1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최우수기관,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 전국 1위, 청렴도 전국 2위 등 도민들이 알지 못했던 지난 4년 간의 성과를 선거과정에서 적극 알린 게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장 당선자는 또 "전남 아이들을 안전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의 당당한 인재로 키우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민선 2기 전남교육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제1기 목표는 교육복지를 튼실하게 하고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들을 줄이는 것이었고, 2기는 전남의 교육력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교육력이 높아져야 전남 아이들이 당당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는만큼 교육 3주체의 협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장 당선자는 "사는 곳이 달라도, 집안 형편이 달라도, 피부색이 달라도, 모두가 소중한 전남의 아이들이다. 누구 하나 빠짐없이 잘 교육해야 전남이 도약한다. 전남이 교육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말로 당선소감을 마무리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약력 ▲영암 출생 ▲KAIST 화학과 이학박사 ▲미국 플로리다주립대·브리검영대 객원교수 ▲순천대 총장 ▲직선 초대 전남도교육감

나주 등 10곳 격전지 많아…전남 65.6%

구례 81.5% '최고'…전국 평균 56.8%

전남 투표율 1위 이유는

6·4 지방선거에서 전남의 투표율이 65.6%를 기록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구례의 투표율은 81.5%에 달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나주·장성·화순 등 격전지가 10여 곳에 달해 전남의 선거 열기가 더욱 뜨거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지방선거 투표 마감 결과, 전남지역의 투표율이 이같이 집계됐고 전국 투표율은 56.8%로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체 유권자 4129만6228명 중 2346만4573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광주는 57.1%의 투표율을 보였고, 대구가 52.3%로 최저를 기록했다. 경기도 53.3%로 투표율이 낮았다.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58.6%로 평균치를 넘어섰으나 경기(53.3%), 인천(53.7%)은 평균을 밑돌았다.

전체 평균보다 투표율이 낮은 지역은 부산(55.6%), 대구(52.3%), 인천(53.7%), 대전(54.0%), 울산(56.1%), 경기(53.3%), 충남(55.7%) 등 7곳이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가 이번 선거에서 5%포인트 정도 투표율을 상승시킨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

특히 전남의 경우 경합지역이 많고, 현역단체장의 무소속 출마와 3선 도전 등 선거 쟁점이 많아 투표율이 높았던 것으로 풀이됐다. 또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로 선거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 등도 투표율 상승을 견인했고, 지역 표심과 밀접한 기초의회 경쟁도 치열해 투표장을 찾은 유권자가 많았다.

구례의 경우, 유권자 수가 2만3363명뿐이지만 서기동 현 군수를 비롯해 4명의 후보가 난립해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오광록기자 kroh@

한 표 행렬 4일 오전 광주시 서구 풍암동 제4투표소 주은 모아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서 주민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31226-중-52297호

老안시력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의원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노안라식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즈
운암동방면 ▲ ◀ 상무지구 방면 신세계백화점 ● 밝은광주안과의원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궁동본점 | 금호지점 | 풍암지점

나주 혁신도시
상가분양 및 임대

위치/가격/디자인/편리성
넘버원 빌딩!

한 빛 타 워 지하 1층~지상 8층(분양)
다성드림빌딩 지하 1층~지상 6층(임대)
킴 스 타 워 지하 1층~지상 5층(분양)

혁신도시 토지, 상가, 아파트
주변토지 다량보유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주 식 회 사 오 늘

분양·임대문의 ☎ 061-333-7077
H. 010-3505-8005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